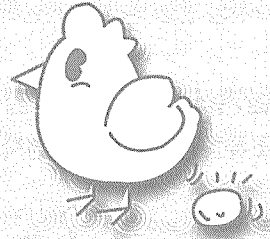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소식



긴급회장단회의 개최 양계인 집회 적극 동참하기로



본회는 지난 21일 본회에서 A관련 긴급회장 단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장단들은 11월 24일 개최될 예정인 A관련 전국 양계인 대회 항의집회와 관련하여 모든 양계업계종사자들이 참여 범국민적으로 A관련 항의집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항의집회의 성공을 위해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A관련 전국양계인 항의집회 양계인 1,500여명 운집

본회는 양계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지난 24일 1시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양계인 및 양계



관련인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가상시나리오를 제작, 전파하여 대 혼란을 초래케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성토 및 업계 요구사항을 천명하였으며, A관련 외신을 인용, 무분별하게 과대·과장방송을 해오고 있는 일부 방송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추궁하였다. 이 외에 축산업계의 현실을 파악치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현행 농림부 소관인 축산물가공업무를 이관하려는 저의와 AI 파동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농가 생계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육계업계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계열농가의 피해에 대해 계열업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성토했기도 하였다. 대회에서는 양계인 및 업계관련인들이 농가 및 양계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본 행사에서 업계 요

구사항 등을 강하게 천명하였다.(관련기사 58쪽)

한겨레신문사 항의방문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을 요구



본회는 지난 21일 관련단체와 함께 한겨레신문사를 방문, 조류독감을 고집하고 있는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로 표기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겨레 신문사측은 회사의 특성상 순수 한글표기를 지향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독감의 어감에 소비영향이 전혀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굳이 바꾸어 사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편집회의를 거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약속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신문사측은 양계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24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꾸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 협조에 편승하였다.

농업인의 날 우리농축산물 큰잔치 참여

지난 11월 10~12일, 3일간에 걸쳐 펼쳐질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도시 소비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보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농협중앙회 신관 앞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본회는 닭고기 500마리, 식란 1만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닭고기·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닭고기·계란 요리책자와 홍보물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였다.

닭고기 시식회는 토종닭연합회 연천지부에서 적극 참여하여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및 산란계발전협의회 공동회의개최



지난 11월 3일 본회회의실에서는 1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와 산란계발전협의회(협회장 송병원)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 산란계자조금거출방법 협의와 난가 하락 관련 사육수수 감축안협에 관해 중점 논의되었다.

난가 하락 관련 사육수수 감축(안)협에서는 채란업계의 상황을 고려, 산란계 도태시기를

100주령으로 하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노계도태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수급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적극적인 노계도태를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외에도 1.8kg이상 노계의 농장간 이동의 금지하하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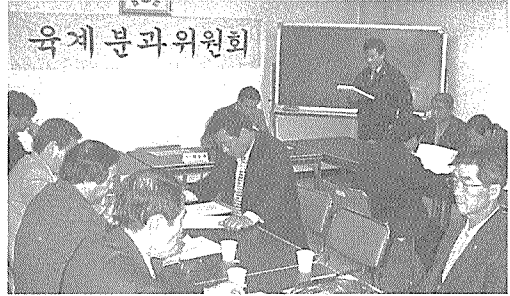
또한, 회의에 앞서 본회에 부임한 이종길 전무를 포함한 경력 및 신입직원소개가 있었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11월 9일 본회회의실에서 중계·부화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계·부화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첫째, 환우를 제한하는 법안마련, 둘째, 외식업계의 수입계육 사용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 셋째, 소비자에 대한 청결한 우리 닭고기 소비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자조금기출관련 변경사항 및 추진계획보고, 종발금 납입 현황, 중계·부화업 불황타개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

긴급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지난달 17일 본회회의실에서 긴급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열렸다. 회의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항의집회안건으로 금년 11월 24일(목) 오후 13:00부터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금관련 전 업계가 동참하여 항의집회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업계요구사항 천명(안)에 관한 보안사항 토의, 참가인원 파악, 항의집회자금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각지



부장들에게 항의집회 강화를 위한 당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항의집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결의했다. 장재성 위원장은 '우리 육계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여 양계인의 힘을 보여주며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항의집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정진 토종닭연합회 총무와 이흥재 당진양계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항의집회의 중요성 강조 및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수입육에 대한 검역강화방안, 내년도 겨울철에 다시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강력 대처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추후 제시된 중요내용은 보완키로 하였다.

일본양계 관련인 본회 방문 SI관련 양국 대처방안 논의

일본양계 관련인들은 지난 14일 본회를 방문, 양국의 양계산업 현황을 교환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한 양국간의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양계 관련인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시 국내 보상 체계에 대해 조사차 방한을 하였으며, 백신 사용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시마다



씨 부부(세이메이 농장), 미치오카 씨(계란생산자 협회), 시미주 기자(계명신문)가 참석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 오봉국 고문, 한희 이사, 이종길 전무가 참석하였으며, 양국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은 관련 학계, 육계 계열사를 방문하고 국내 양계현장을 돌아보았다.

본회 및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감사패 수상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서 한국기금 학회 및 제22차 정기총가 열리는 자리에서 본회 및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중)가 양계산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본회 윤정로(독바위농장) 이사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창원 건국대학교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직원자체교육 실시

본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직원자체교육을 실

시했다. 추후에도 올해 안으로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 직원이 중점이 되는 상호업무를 파악하여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종계DB구축 운영사업(경영지도팀 김재홍 대리, 11/16), 축산물 자조금(자조금사업팀 공혜경 사원, 11/30), 조류인플루엔자를 정확히 인식하자(홍보팀 기영훈 사원, 12/14), 인사·복무·문서관리(업무지원팀 임해숙 대리, 12/21)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질의문답사항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회 직원채용

본회 이종길 전무서리



◀ 이종길 전무

본회는 지난 1일 임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종길 전무서리를 임명하였다. 이종길 전무서리는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성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를 거쳐 축협중앙회에서 여신관리·금융기획·영업부장을 역임 이후 경북도지회장, 축산기획부소속참사를 역임하였다. 농·축협재직시 금융기획, 기획조정 등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통제 등 행정업무의 경험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인하 주임

본회는 지난달 14일부로 업무지원팀에 손인하



◀ 손인하 주임

씨를 경력사원으로 채용했다. 손인하 주임은 수도권방위사령부 운전병경력과 건축인테리어 등 다방면의 경험을 가졌으며 앞으로 본회 최준구 회장을 보좌하면서 회장 일정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게 된다.

(지회지부소식)

**김포지부
방역교육 실시**



경기도 김포·강화지부(지부장 임재룡), 김포시육계지부(지부장 김동필)에서는 지난 11월 11일(금) 오후 5시부터 통진읍사무소에서 유종철 박사(네오바이오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겨울철 질병관리에 대해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교육은 경기도에서 후원하고 가축위

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최하여 이루어졌으며 작년에 이어 양계농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방역본부 경기도본부 김창수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김포축협 이용현 전무, 축산위생연구소 정대은 방역계장, 산란계, 육계, 오리농가, 관련업체등 6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방역교육의 중요성을 함께하였다.

이번 방역교육으로 그 어느때 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농가 자율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구경북지회
소비 홍보운동**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오정길)는 지난 11월 18일 한국양계농협, 경북도청이 협력하여 시식행사및 소비촉진행사를 가졌다.

이날 경북도청 구내식당에서는 경북도지사, 대구경북도지회장, 한국양계농협영남본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육농가가 함께하여 도청 전 직원들과 시식회 겸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육농가의 피해와 예방을위한 도청의 협조를 요청, 도지사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침산동 하나로마트에서는

시민들에게 계란과 닭을 여러 가지로 요리하여 시식회를 가지면서 전단지 약 2만부를 배포 닭고기와 계란의 안전성을 홍보하였다.

홍성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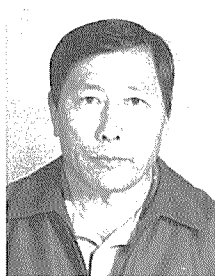
계란·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홍성지부는 지난 11월 21일에 홍성군 하상 주차장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홍성지부 주최, (주)육성이 주관, 홍선군·농협홍성지부·홍성축협·홍성신문·패리카나가 후원해 홍성지역 모두 가 한마음이 되어 이번 행사를 성사시켰다. 행사 내용으로는 계란, 치킨, 바비큐 훈제요리 시식행사와 바비큐 훈제 판매행사로 이루어졌으며 판매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서산육계지부

이동용 신임 지부장 선출

서산육계지부는 지난 15일 총회를 갖고 초대 지부장에 이동용 지부장 등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이동용 지부장

지 부 장 : 이동용
부지부장 : 한명희
총 무 : 이현주
고 문 : 김종철
감 사 : 정현구, 박임수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11/2~5 2005서울국제식품전시회
- 11/7 제6차 위생방역지원본부 임시이사회
- 11/8 조류독감의 치명적 위험성 및 국내최초 인체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세미나
- 11/8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및 제 1차 회의
- 11/9~11 우리농축산물 한마당 큰잔치
- 11/9 2005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행사 평가회의
- 11/9 육계분과 닭고기소비행사 추진회의
- 11/9 11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
- 11/10 올텍코리아의 아시아·태평양 순회 강연
- 11/11 AI 방역추진 점검회의
- 11/14 일본 계란생산자(시마다상) 분회 방문
- 11/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추천위원회
- 11/16 양계·오리협회 조류인플루엔자 대책회의
- 11/17 농특위 위원장주재 농업계 원로간담회
- 11/17 긴급 육계분과위원회
- 11/17 축산물등급판정소 2005년도 제4차 이사회
- 11/18 2005년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18 2005 가을 축산인 등반대회
- 11/21 긴급회장단회의
- 11/21 열린우리당 주관 닭고기 시식 및 판매행사
- 11/22 AI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장단회의
- 11/23 '05. 제4차 축산협 대표자회의
- 11/24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전국 양계인 향의 집회
- 11/30 닭고기·계란 소비홍보 및 시식회